

국립공원 입장료에 대한 이용객 의식 조사¹

- 속리산국립공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

김용근² · 조중현³ · 박태희⁴

A Survey on the Visitor's Cognition of Admission Fee in National Park¹

- The Case Study of Songnisan National Park -

Yong-Geun Kim², Joong-Hyun Cho³, Tae-Hee Park⁴

요 약

본 연구는 국립공원의 실수요자인 이용객들의 현행 입장료 징수체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속리산국립공원을 찾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특성, 방문유형과 이용행태, 현행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체계에 대한 인식 등을 주요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345부의 설문지 중 유효표본은 339부였다.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방문유형, 방문목적 등은 다른 국립공원 이용객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국립공원 입장료가 인상 여부와 징수된 입장료의 사용처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입장료의 수준에 대해서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국립공원 입장료에 문화재 관람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입장료의 합동징수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국립공원 문화재의 범위를 '사찰경내에 있는 불교문화재'라고 인식하는 응답자와 '사찰과 사찰주변의 문화재뿐만 아니라 울창한 삼림도 포함하는 광의적 개념'이라는 응답자가 비교적 대등하게 나타난 반면,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해서는 역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주요어 : 입장료 징수체계, 문화재 관람료, 합동징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and analyze of the visitor's cognition of admission fee collection system in National Park. To accomplish the purposes, a questionnaire survey was employed in Songnisan National Park. The contents of questionnaire consist of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the types of visiting, the activity, the cognition of admission fee collection system. 339 samples of total 345 respondent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As a result of

1 접수 9월 30일 Received on Sept. 30, 2002

2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School of Architecture, Urban Planning,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3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Seoul

4 동신대학교 도시·조경학부 School of Urban Planning, Landscape Architecture, Dongshin University

the analysis,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the types of visiting, the visiting purpose were showed similar trends with results from other National Park visitors survey. Most of respondents didn't recognize the raise of admission fee and how to use the admission fee. And they recognized that it is too expensive. Most of respondents recognized the joint collection of admission fee but they were strong against it. About the range of cultural assets in National Park, the cognition of 'Only Buddhism's assets in temple' was almost equal with the cognition of 'It includes not only cultural assets of inside and outside temple but also thick forest in National Park'. But most of respondents were strong against the collection of admission fee of cultural assets.

KEY WORDS : ADMISSION FEE COLLECTION SYSTEM, ADMISSION FEE OF CULTURAL ASSETS, JOINT COLLECTION

서론

국립공원은 그 지정 목적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국토의 가장 고유한 자연과 경승이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명산대찰(名山大刹)이라는 말과 같이 우리 문화유산의 핵심체인 유명 사찰을 간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체성을 수호하고 있는 원형적 심장부라 할 수 있다(국립공원관리공단, 1998).

최근 도시환경의 질이 악화되고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과밀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을 찾는 휴양인구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과 문화유산의 보고인 국립공원을 찾는 관람객의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립공원과 같은 쾌적한 환경의 야외 휴양지에 대한 수요급증과는 달리, 공급측면에서 볼 때 이용 가능한 자연환경이 극히 제한적이거나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수급 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이용할 수 있는 야외휴양자원의 양이 한정되어 있을 경우, 공공자원의 배분(public resource allocation)은 가격의 책정(pricing), 예약(reservation), 추첨(lottery), 순서대로 줄서기(queueing)와 같은 형태로 공공자원의 사용을 제한하면서 이용객 함으로써(Loomis, 1980; Wikel, 1991; 김성섭, 2000) 자원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중 가격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겨진다(Clawson and Knetsch, 1966; Loomis, 1980; 김성섭, 2000).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공원법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의거, 공원에 입장하는 이용객들로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지정 문화재의 소유자나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들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관람료의 징수)를 적용, 1,000~1,900원의 문화재관람료를 함께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공원과 같은 공공부문의 관광자원은 주로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관리되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편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가치재(merit good)(김사현, 1997)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일반시민들에게 무료 또는 최소한의 가격으로 이들 자원에 대한 이용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의 입장료 징수체계는 이용객의 방문목적과 의사와는 무관하게 과중한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국립공원 입장료를 둘러싼 이용객들의 불만은 더 나아가 국립공원의 입장료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각 주체 즉, 국립공원의 관리주체인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문화재의 관리주체인 사찰, 그리고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국립공원의 입장료 징수체계를 둘러싼 갈등양상을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강구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위한 기초단계로서 국립공원의 현행 입장료 징수체계의 확립과정과 이로 인한 갈등양상에 대한 고찰과 함께 현행 입장료 징수체계에 대한 이용객들의 인식

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의 현황

1. 국립공원의 입장료 징수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자연공원법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따라 1970년 5월 속리산국립공원에서 최초로 징수하기 시작하였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립(1987년 7월)된 이후 최초로 입장료를 징수한 공원은 북한산국립공원이었다. 북한산국립공원의 경우, 대도시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타 국립공원과는 달리 1,000만 시민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어 각계각층으로부터의 입장료 징수 반대운동에 직면하게 되었으나, 언론보도자료 제공, 언론사 인터뷰, 주민홍보 및 유관기관의 여론수렴과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하여 입장료 징수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홍보함으로써 1988년 12월 6일부터 공원 입장료 징수가 시작되었다.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관람료의 징수-국가지정 문화재의 소유자나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에 따라 1962년 12월 가야산 해인사에서 처음 징수하기 시작하였으며, 국립공원지정 이전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던 사찰로는 해인사, 법주사, 백양사, 화엄사, 동학사, 갑사 등이 있으며, 이후 동사찰이 위치해 있는 자연풍경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입장료를 징수하게 됨에 따라 공원 이용요금의 징수방법이 공원별로 상이하였으나(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분리 또는 합동 징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립되기 직전인 1987년 4월부터 모든 공원에서 법적 근거 없이 합동징수를 시작하였다. 이는 국립공원관리업무가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되기 직전인 1990년 12월에 대한불교조계종에서 합동징수의 법적 근거를 자연공원법에 명시해 달라는 요청을 청와대에 하였고, 이를 안건으로 한 관련 부서(문화부·총무부·내무부) 회의 결과, 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는 각각의 모범이 달라 법제화는 곤란하나 이를 행정지침으로 수용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합동징수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국립공원관리공단, 1998).

2.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에 따른 갈등

(1) 국립공원관리공단

일부 국립공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립공원 이용료와 문화재관람료의 합동징수는 「동일한 지역에서 요금을 각각 지불하는 불편을 해소」 한다는 목적으로 정부와 대한불교조계종간의 합의에 의해 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 동안 합동징수로 인하여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대한불교조계종간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각 기관간의 입장차이로 인하여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대표적 사례로 지리산국립공원의 경우, 천은사의 문화재 관람의사 없이 단순히 도로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탐방객에 대해서까지의 무조건적인 문화재관람료 징수의 적법성에 대하여 일부시민 단체에서 소송을 제기중(1심 지방법원: 패소, 2심 고등법원: 승소, 3심: 대법원에 재판 계류중)에 있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별도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2) 대한불교조계종

정부가 국립공원을 지정한 뒤 보상 등의 대가없이 사찰소유의 땅 등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임의로 사용하고, 신도들에게까지도 입장료를 받아 포교활동에 제약을 받아왔으며, 또한 문화재 유지 보수와 관련된 엄청난 비용을 대부분 사찰측에서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합징수는 불가피하며, 또 문화재라는 것이 단순히 경내의 불상 등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건물이나 수림 등 풍광 그 자체여서 문화재관람의 개념 자체가 포괄적이라는 주장이다(다른신문, <http://www.darnnews.com>). 이러한 개념을 적용할 때,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건의 경우, 문제의 도로는 관광도로로서 도로 이용자체가 천은사 일대의 문화재를 관람하는 행위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한번도 쉬지 않고 산내 방면으로 빠져나갈 때만 예외라는 입장이다.

(3) 이용자 및 시민단체

국립공원 이용자를 대표하는 산악인과 시민단체들은 현재 조계종 산하 69개 사찰에서 해당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군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징수하고 있으며, 공원입장료를 받지 않는 지역의 사찰에서도 등산로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모든 등산객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를 악용해서 불법,

부당하게 징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리산 국립공원의 경우, 도로가 천은사 앞을 통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찰 관람 여부와 관계없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들은 전국 69개의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의도가 전혀 없는 탐방객과 문화재가 있는 사찰 근처에도 가지 않는 일반 등산객 모두에게 법적 근거도 없이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는 부당하므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경남일보, <http://www.gnnews.co.kr>).

이처럼, 현행 국립공원의 입장료 징수체계에 대해 국립공원의 관리주체인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문화재의 관리주체인 대한불교조계종, 그리고 이들 자원에 대한 실질적 수요자라 할 수 있는 이용객들은 그 입장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양상이 지속될 경우, 자칫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야기하거나 표면적인 해결 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속한 문제해결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각 주체간의 의견개진 및 협의, 조율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본 연구는 국립공원과 관련된 각 주체 중 국립공원의 실수요자인 동시에 입장료 징수의 주 대상인 이용객들의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체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분석에서 그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현행 국립공원의 입장 징수체계에 대한 이용객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면접조사법을 이용하였다. 조사 대상지로는 국립공원 최초로 입장료를 징수하였으며, 국립공원 내 대사찰(법주사)과 진귀한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어 현재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징수하고 있는 속리산국립공원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조사기간 내 속리산국립공원을 방문한 18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였으며, 총 345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이 중 활용 가능한 유효표본은 339부였다.

설문조사는 2000년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공원 대표소와 관리사무소 인근에서 실시되었다. 조사는 사회과학 조사방법론을 교육받은 조사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었으며, 조사자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설문방법에 의한

편기(Bias)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실시 전 조사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설문방법은 한 명의 조사자가 한 명의 조사대상자에게 질문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조사자가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설문의 내용은 크게 사회인구학적 통제요인(5문항), 속리산국립공원 방문유형과 이용행태(6문항), 현행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체계에 대한 인식(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에는 SPSS 10.0 for Windows 프로그램이 이용되었으며, 표본 및 항목의 특성과 상관관계,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T검정 등이 활용되었다.

결과 및 고찰

1.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응답자의 성별분포는 남자가 61.4%, 여자가 37.2%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있어서는 20대가 21.5%, 30대가 26.8%, 40대가 31.3%로 응답자의 대부분은 20~40대의 젊은층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3.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이용객들의 교육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수준의 척도가 되는 월평균 가구소득에 있어서는 150~199만원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00~149만원 23.9%, 200~249만원 15.9%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응답자의 9.4%만이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응답자의 거주지별 분포로는 서울지역 19.5%, 경기지역 26.8%, 충청지역 28.3%, 경상지역 14.5%로 나타나, 속리산국립공원의 이용객들은 특정 지역에 크게 편중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고르게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 남성의 성비, 젊은층(20~40대)의 비율, 교육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은 여타 국립공원 이용자에 대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김용근, 1993; 김용근과 최성식, 1994; 1995; 김용근 등, 1996; 김용근과 유

기준, 1999; 유기준과 김용근, 2000).

2. 방문유형 및 이용행태

(1) 방문유형

응답자 중 속리산국립공원을 한번 이상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80.5%를 차지하였으며, 그 횟수에 있어서는 2~5회 정도가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주로 방문하는 계절에 대해서는 계절에 관계없이 방문한 경우가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을에 방문한다는 응답자와 무응답이 각각 30.4%, 20.4%로 조사되었다. 국립공원에서의 체류일정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의 80.8%가 당일 체류 예정으로, 18.9%만이 1박2일 이상 체류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중 이전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재방문자와 당일체류 이용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여타 국립공원 이용자에 대한 연구(김용근, 1993; 김용근과 최성식, 1995; 김용근 등, 1996)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며, 속리산국립공원 이용객은 대체로 재방문율이 높고, 계절에 관계없이 방문하는 경향이 있으며, 1박 이상의 숙박형 이용보다는 당일 체류형 이용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방문목적과 주요활동

방문의 목적으로는 응답자의 78.2%가 자연감상, 등산 및 건강증진 등의 목적으로, 18.6%는 사찰방문 및 문화답사를 목적으로 속리산국립공원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Figure 1), 주요활동으로는 응답자의 51.0%가 등산이나 단풍구경 등 자연환경을 즐긴다고 응답하였고, 34.8%는 자연환경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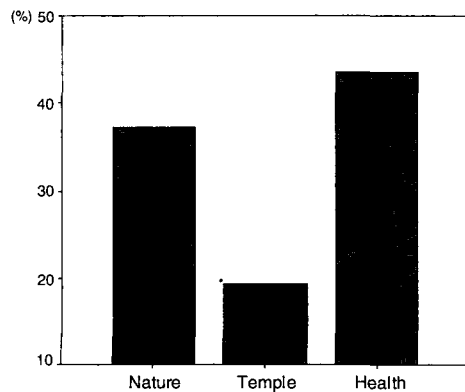


Figure 1. Visiting purpose

께 사찰도 방문한다고 응답한 반면, 사찰방문이 가장 주된 활동이라는 응답자는 1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

방문목적이나 주요활동에 있어서 자연감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등산 등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타 국립공원, 특히 산악형 국립공원의 이용자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김용근, 1993; 김용근과 최성식, 1994; 1995; 김용근 등, 1996; 유기준과 김용근, 2000)와 유사하지만 사찰방문 또는 문화답사를 목적으로 방문했다는 응답이 타 국립공원에서의 조사결과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 점은 속리산국립공원이 이용객들에게 빼어난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대사찰(법주사)과 문화자원이 있는 국립공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판단된다.

3. 현행 입장료 수준과 징수체계에 대한 인식

(1) 입장료 인상과 입장료 사용처에 대한 인지여부

국립공원 입장료가 2000년 7월 이전 1,000원에서 현재의 1,300원으로 인상된 사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10.0%만이 방문 전에 알고 있었고, 응답자의 89.1%는 몰랐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Figure 3), 징수된 입장료가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6.2%('모른다':44.0%, '전혀 모른다':42.2%)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Figure 4).

응답자의 성별 및 학력, 방문경험 및 방문목적과 국립공원 입장료 인상에 대한 인지여부와 교차분석결과 성별과 방문경험의 유무, 방문목적에 따라서 국립공원 입장료의 인상에 대한 인지여부에 있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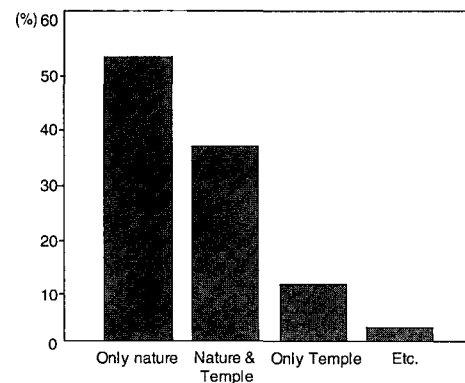


Figure 2. Activ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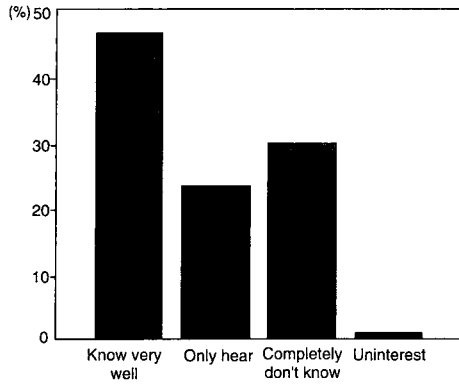


Figure 3. Cognition of raising in admission f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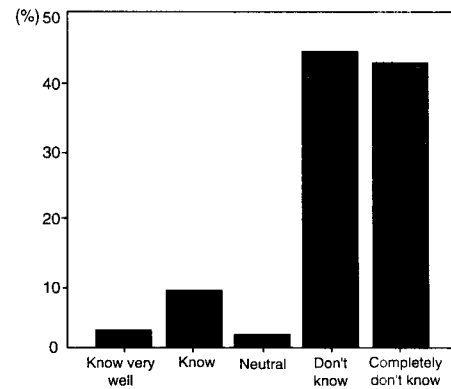


Figure 4. Cognition of how to use of admission fee

Table 1. Crosstabulation between gender, visiting experience, visiting purpose and cognition of raising in admission fee in National Park

| Variables | | Cognition of raising in admission fee*** | |
|---------------------|--------|--|------------|
| | | Know | Don't know |
| Gender | Man | 13.5 | 86.5 |
| | Woman | 4.0 | 96.0 |
| Visiting experience | Yes | 12.1 | 87.9 |
| | No | 1.6 | 98.4 |
| Visiting purpose | Nature | 3.3 | 96.7 |
| | Temple | 7.9 | 92.1 |
| | Health | 14.8 | 85.2 |

*** Chi-square $P < .05$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이처럼 속리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대부분이 2000년 7월 이후에 국립공원 입장료가 인상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입장료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립공원의 관리주체가 공원 입장료의 인상이나 입장료의 사용처와 같이 이용객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결과로 생각되며, 공원 입장료에 대한 이용객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이용객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현행 입장료의 수준과 적정 입장료에 대한 인식

현재 국립공원 이용객들이 지불하고 있는 입장료의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3%가 '매우 비싸

다'는 응답을, 37.8%가 '비싸다'고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의 92.1%가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불과 2.4%의 응답자만이 입장료가 '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igure 5).

또, 국립공원 입장료의 적정수준에 대해서 응답자의 73.5%가 '1000원 미만'이라고 답하였고, 11.8%의 응답자는 '입장료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000~3000원 미만', '3000원 이상'이 각각 5.0%와 0.6%로 조사되었다(Figure 6).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국립공원 입장료의 수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국립공원 입장료의 수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소득수준에 따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이는 소득수준과 공원 입장료 수준에 대한 지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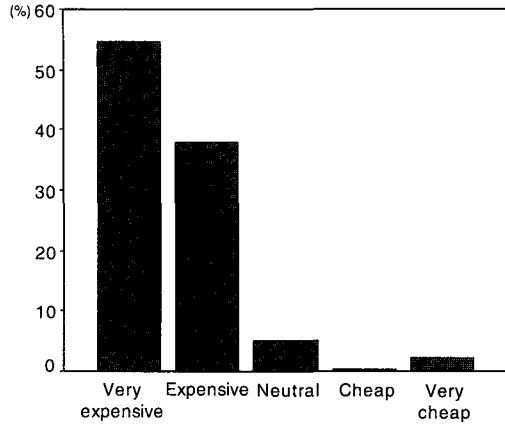


Figure 5. Cognition of level of admission f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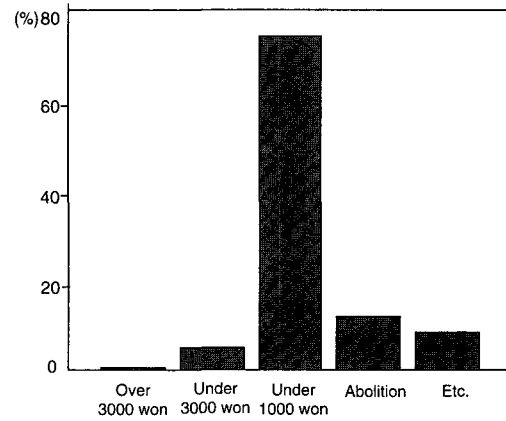


Figure 6. Cognition of level of reasonable admission fee

Table 2. The difference of cognition of level of admission fee between high and low income

| Income | Mean | S.D. | t | 2-Tail Prob. |
|---------------------|------|------|-------|--------------|
| Under 2,000,000 won | 1.52 | .68 | 2.438 | .016 |
| Over 2,000,000 won | 1.27 | .95 | | |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Loomis, 1980; Philipp, 1995; 김성섭, 2000)와 유사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속리산국립공원 이용자들은 대체로 현재 징수되고 있는 입장료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입장료의 징수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입장료가 자신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결국, 이용자

자신들의 경제적 부담의 증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3) 합동징수의 인지여부 및 합동징수에 대한 의견

현재 국립공원 이용객들이 지불하는 입장료에 문화재관람료가 포함되어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응답자의 46.3%가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을, 23.0%가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29.5%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Figur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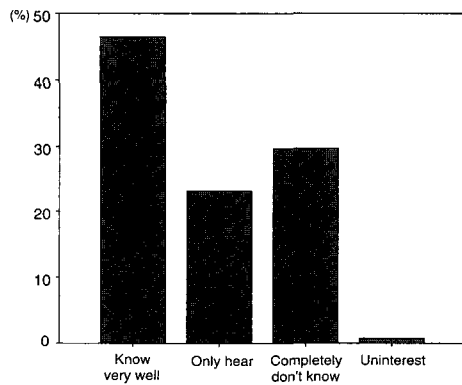


Figure 7. Cognition of joint collection of admission f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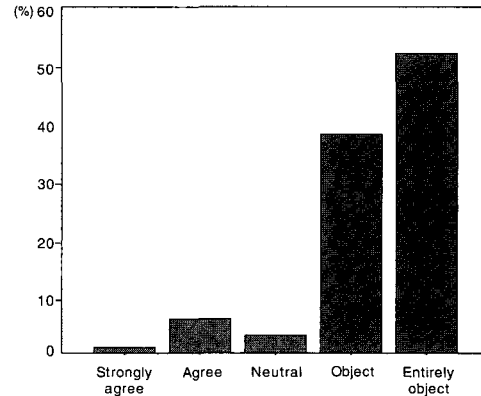


Figure 8. Opinion of joint collection of admission fee

Table 3. The difference of opinion of joint collection of admission fee between young and old group

| Age | Mean | S.D. | t | 2-Tail Prob. |
|-----------------|-------|------|--------|--------------|
| Young(under 40) | -1.44 | .79 | -1.968 | .050 |
| Old(over 40) | -1.25 | .93 | | |

또 현재와 같이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함께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6%가 '절대 반대한다'는 응답을, 37.8%가 '반대한다'고 응답하였고, '매우 찬성한다'와 '찬성한다'는 응답은 각각 0.9%와 5.9%로 소수의 의견을 차지하였다(Figure 8).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국립공원 입장료의 합동징수(문화재 관람료 포함)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국립공원 입장료의 합동징수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이상의 결과는 속리산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대체로 자신들이 지불하는 국립공원 입장료에 문화재 관람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현행 징수체계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의사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경향은 젊은층이 노령층에 비해 보다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합동징수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는 결국, 이용자 자신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4) 국립공원 문화재의 범위에 대한 인식과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한 의견

국립공원 문화재의 범위에 관해서는 '사찰경내에 속한 불교문화재를 말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3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사찰과 사찰 주변의 문화재뿐만 아니라 울창한 삼림도 포함된 광의적 개념'이라는 응답이 34.5%를 차지하였으며, '사찰과 사찰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모두 포함한다'라는 응답이 24.5%로 나타났다(Figure 9).

또, 사찰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통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응답이 78.8%로 높게 나타난 반면, 징수가 '당연하다'는 응답자는 7.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Figure 10).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사찰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통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의 교차분석결과 연령에 따라서 문화재 관람료의 징수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이상의 결과는 속리산국립공원 이용객들이 국립공원 내 문화재의 범위를 '사찰경내에 있는 불교문화재'로 그 범위를 국한시키고 있는 입장에서부터 '사찰과 사찰주변의 문화재뿐만 아니라 울창한 삼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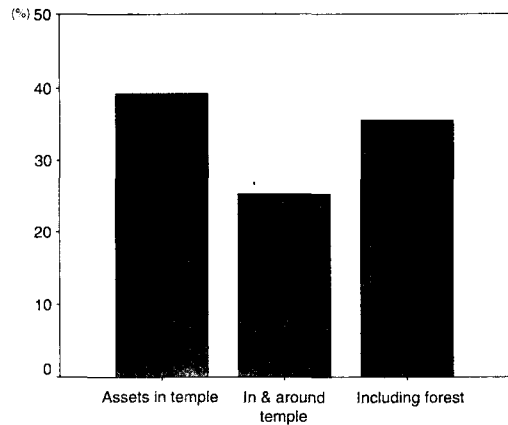


Figure 9. Range of cultural ass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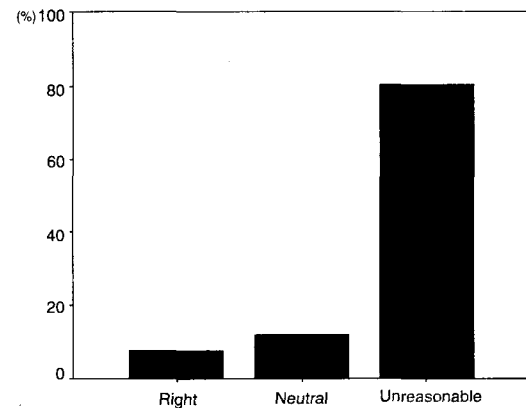


Figure 10. Opinion of collection of admission fee of cultural assets

Table 4. Crosstabulation between age and opinion of collection of admission fee of cultural assets in National Park

| Variables | Opinion of collection of admission fee of cultural assets*** | | | |
|-----------|--|---------|--------------|------|
| | Right | Neutral | Unreasonable | |
| Age | 10~19 | - | 33.3 | 66.7 |
| | 20~29 | 5.5 | 12.3 | 82.2 |
| | 30~39 | 3.3 | 8.8 | 87.9 |
| | 40~49 | 9.5 | 12.4 | 78.1 |
| | 50~59 | 10.9 | 10.9 | 78.2 |
| | Over 60 | 40.0 | 20.0 | 40.0 |

*** Chi-square $P < .05$

도 포함하는 광의적 개념'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입장까지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그러한 인식과는 달리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연령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재 관람료의 징수에 대한 이용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문화재의 범위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용객 자신들의 경제적 부담의 증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된다.

결론

본 연구는 현행 국립공원의 입장료 징수체계를 둘러싼 갈등양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강구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위한 기초단계로서 국립공원의 실수요자인 이용객들의 현행 입장료 징수체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속리산 국립공원을 찾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특성, 방문유형과 이용행태, 현행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체계에 대한 인식 등을 주요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속리산국립공원을 방문한 이용객들은 대체로 남성인 여성에 비해 많았고, 젊은층(20~40대)의 비율과 교육수준이 높았으며, 이전에 한번 이상 방문한 경험이 있는 재방문자와 당일체류 예정 이용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타 국립공원 이용자에 대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었다.

방문목적이나 주요활동으로는 자연감상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등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 또한 타 국립공원, 특히 산악형 국립공원의 이

용자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반면, 사찰방문 또는 문화답사를 목적인 방문이 타 국립공원에서의 조사결과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속리산국립공원이 이용객들에게 빼어난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대사찰(법주사)과 문화자원이 있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판단된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인상여부와 징수된 입장료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이용객의 대부분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국립공원의 관리주체가 공원 입장료의 인상이나 입장료의 사용처와 같이 이용객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결과로서 공원입장료에 대한 이용객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국립공원 이용객들이 지불하고 있는 입장료의 수준에 대해서 '비싸다'는 인식과 입장료의 적정수준을 '1000원 미만'으로 인식하는 이용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속리산국립공원 이용자들은 대체로 현재 징수되고 있는 입장료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입장료의 징수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입장료가 자신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결국 이용자 자신들의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밖에 이용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입장료의 수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소득수준과 공원 입장료 수준에 대한 지각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이용객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지불하는 국립공원 입장료에 문화재 관람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이와 같은 통합징수체계에 대해서 강한 반대의사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노령층에 비해 젊은층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통합징수체계에 대해 이용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난 것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이용자 자신들의 경제적 부담의 증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국립공원 문화재의 범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사찰경내에 있는 불교문화재'로 그 범위를 국한시키고 있는 입장에서부터 '사찰과 사찰주변의 문화재 뿐만 아니라 울창한 삼림도 포함하는 광의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입장까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난 반면,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또한 문화재 관람료의 징수에 대한 이용객들의 부정적 인식이 문화재의 범위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기인한 결과라기보다는 이용객 자신들의 경제적 부담의 증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기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은 국립공원을 비롯한 공공공원의 입장료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국립공원과 같이 주로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 공원에 있어서 재정지원이 부족할 경우나 더 좋은 시설을 만들고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입장료의 인상이나 징수체계의 변경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경제적 부담의 증가가 이용객에게 있어서는 가장 부정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정책이 공원이나 문화재의 관리주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시행되기보다는 이에 앞서 이용객(수요자)의 관점에서 입장료 수준과 징수체계에 대한 수용정도를 분석하고 정책 시행의 불가피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함께 이용객들의 양해를 구함으로써 최대한 이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현행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체계에 대한 이용객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하는데 중점을 둔 초보적인 연구로서의 한계를 지

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는 보다 심도 있는 접근방법을 통해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체계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관한 연구가 폭넓게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 용 문 헌

- 국립공원관리공단(1998) 국립공원30년사. 국립공원관리공단, 202~203쪽.
- 김사현(1997) 관광경제학신론. 일신사, 10~25쪽.
- 김성섭(2000) 공원 탐방객들의 입장료수준 지각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4(2): 178-179.
- 김용근(1993) 소백산국립공원 이용자 행태조사. 응용생태연구 6(2): 226-227.
- 김용근, 최성식(1994) 덕유산국립공원 이용자 행태조사. 응용생태연구 7(2): 223-227.
- 김용근, 최성식(1995) 주왕산국립공원 이용자 행태조사. 응용생태연구 8(2): 164.
- 김용근, 최성식, 조중현(1996) 오대산국립공원 이용자 행태조사. 한국환경생태학회지 9(2): 189-196.
- 김용근, 유기준(1999) 한려해상국립공원 이용객 행태조사. 한국환경생태학회지 12(4): 389-397.
- 유기준, 김용근(2000) 지리산국립공원 이용객 행태 및 이용·관리에 대한 중요도-성취도 분석. 한국환경생태학회지 13(4): 367-374.
- Clawson M. and J.L. Knetsch(1966) Economics of outdoor recre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 Loomis J.B.(1980) Monetizing benefits under alternative river recreation use allocation systems. Water Resources Research, 16(1): 28-32.
- Philipp S.(1995) Race and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7(2): 109-120.
- Wikle T.A.(1991) Comparing rationing policies used on river. Journal of Park and Recreation Administration 9(3): 73-80.
- 경남일보, <http://www.gnrnews.co.kr>
- 다른신문, <http://www.darnnews.com>